

14만 경찰회의의 철회...“국회사 시정”

이상민 장관 “매우 다행스럽다”

민주 “모든 방법 강구 경찰국 저지”

류근창 경감 “소규모 회의라도 강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계획했던 14만 경찰회의가 철회된 것과 관련 “매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강행에 반발,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어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이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회의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금 (회의 철회) 소식을 들었는데 매우 다행스럽다 생각한다”며 “이제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고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저와 14만 경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전체 경찰회의’를 주도했던 김성중 서술 경진서 경감이 이날 경찰 내부망에 ‘자진철회’

글을 올리면서 “국회가 경찰국 설치를 입법적으로 시정해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일을 정치이슈화하지 말고 내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경찰대 개혁을 넣으면서 ‘경찰 갈라치기’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경찰대 및 비경찰대 출신 모두) 다 같은 경찰가족이며, 갈라치기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대 개혁은 이번 전국경찰서장회의 훨씬 이전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들어갔던 것”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특정 직역이 부당하게 이익을 받는 불공정은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저지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격양된 분위기를 보였다.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경찰장악 대책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에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정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

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를 빼앗으면 식물 정장이 된다”, 바로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이 존엄한 국민의 뜻을 티끌만큼이라고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무도할 리 없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정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이 장관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근창 경감은 이날 울린 경찰 내부망 글에서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들도 팀장님들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이곳에 제안한 동료로서 30일 오후 2시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장소는 그 인근도 있으니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동료가 참석하는 행사는 당장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며 “비록 적은 동료들이 모여더라도 전체 14만 경찰이 모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8·28 전당대회 비대면으로 치른다

코로나 확산에 온라인 투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내달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를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의원 1천명 이상이 모이는 시

도당 대의원 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8·28 전국 대의원 대회 역시 1만5천~2만명 가량이 유집한다. 이 역시 비대면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면 다시 현장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 국민통합위 출범

김한길 위원장·민간위원 24명 위촉 기획, 정치·지역 등 4개 분과 활동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김한길 위원장 및 민간위원 24명을 위촉하고 국민통합 전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김 위원장과 함께 기획(4명), 정치·지역(6명), 경제·계층(7명), 사회·문화(7명) 등 4개 분과별로 활동하게 된다.

기획 분과는 최재천 전 의원(분과위원장), 우석훈 ‘내가 꾸민 나라’ 대표,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인순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국민통합위 운영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치·지역 분과에서는 위원장인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김영우·최병길 전 의원, 이현출 건국대 교수, 정희욱 명지대 교수 등이 협치의 정치문화 구현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층 분과 위원장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희정 ‘짜깁악어’ 스타트업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상상환경과 경제 격차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사법시험 동기인 최원식 전 의원의 이름을 올렸다.

사회·문화 분과에는 위원장인 윤정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석좌교수 외에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이자스민 전 의원, 배우 유동근 등이 참여해 여러 관련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통합이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정부 내 인식과 사회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에 대해선 “국민통합 상징성이 높고 갈등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국민통합위는 갈등 해결을 위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 아래 시급성·과급성이 높은 과제별로 전문성을 지닌 특별위원회를 통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보고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불참...과방위 첫회의부터 ‘반쪽’

21대 국회 후반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이 벌써 본격화하면서 향후 과방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는 27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한편 위원들과 각 기관장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박안주 의원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첫 회의를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돼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일하는 국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으로 선임된 날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과 통화해 (회의 일정 상의를 위해) 25일 오후 2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

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며 “이후 문자로만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한 뒤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과방위 최대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 “언론과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조속히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켜 방송이 정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에 “아직도 여당으로서의 태세 전환이 안 된 것인가”(고민정 의원), “민생에 대한 고민은 하는 것인가”(장경태 의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오광록 기자 kroh@

이형석 의원 선관위·인권위 직무감찰 제외 명문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사진) 국회의원은 2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원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 발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선관위가 대통령직 인수



위의 업무보고 요구를 거부한 직후 이뤄져 보복 감사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정부 부처가 아니므로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인수위의 업무보고와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형석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직무감찰 제외대상 기관으로 명문화해서라도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막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공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를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 최신기계설비완비, 공장 즉시 가동 영입 가능

금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민공고)

주식회사 경일(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릭(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2년 07월 21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며,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7월 28일

“갑” 주식회사 경일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913-13(오식도동) 사내이사 김대길

“을”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릭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로 214(연산동) 대표이사 나춘희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민공고)

주식회사 다해(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동화전력(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2년 07월 21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며,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7월 28일

“갑” 주식회사 다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06번길 16-14, 1층(신창동) 대표이사 이효동

“을” 주식회사 동화전력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중부리 779 대표이사 임환균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민공고)

주식회사 동진전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거성전력(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2년 07월 27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7월 28일

“갑” 주식회사 동진전력
(법인등록번호 : 204911-0000087)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10 대표이사 이종선

“을” 주식회사 거성전력
(법인등록번호 : 204911-0009998)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신창리 1-16 대표이사 박춘택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농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6600

<p>光州日報</p> <p>북구</p> <p>동구</p> <p>남구</p> <p>서구</p> <p>광산구</p>	<p>• 동 광 266-1920</p> <p>• 오 지 266-7601</p> <p>• 남 광 673-6836</p> <p>• 남 부 673-6836</p> <p>• 광 천 382-5788</p> <p>• 통 일 603-0311</p> <p>• 동 광 266-1960</p> <p>• 동 봉 433-1503</p> <p>• 동 동 222-9054</p> <p>• 백 은 651-1833</p> <p>• 상 무 372-2352</p> <p>• 화 정 369-1625</p> <p>• 북 광 주 525-3761</p> <p>• 우 산 433-1503</p> <p>• 동 부 225-6001</p> <p>• 봉 신 673-6836</p> <p>• 서 광 주 369-1625</p> <p>• 월 곡 959-1920</p>	<p>• 신 안 222-8171</p> <p>• 양 산 571-7658</p> <p>• 중 앙 222-9054</p> <p>• 송 하 675-6605</p> <p>• 천 현 376-7153</p> <p>• 차 평 376-6511</p> <p>• 하 남 955-0451</p> <p>• 광 산 944-0444</p>
--	---	---